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13째주 (3월 28일)

정교회 주보



성 에브불리

사순절 제 2주일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대주교

성 이로디온 사도

제 1조, 조과복음 9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에서

•제 1조 부활찬양송 / 81, A 211

•주일 입당송 / 14, A 42

•주교 찬양송 / 84, B 263

•성당 찬양송

•사순절 시기송 / 223, B 276

•사도경 : 히브리 1:10~2:3 / 229, 봉독서 448

•복음경 : 마르코 2:1~12 / 138, B 94

•성모송(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223, A 171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에브불리

성 에브불리는 극단적 우상숭배자 에브스토르기오스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의 나쁜 행동을 수년간 용감하게 참아왔습니다. 부모에 의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남편의 모든 일에도 열정적인 올바른 믿음을 보였습니다. 성녀는 위대한 성인 뱀뮈레이몬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육체보다는 영혼을 더 많이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그리스

도의 성체와 성혈로 양육하였기 때문에 안심하면서 아들보다 먼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아가 되거나, 아버지의 짐착으로 쫓겨날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녀의 믿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자신의 아들이 승리하고 승리의 월계관을 받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3월 30일을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3~4세기)



우리 삶에 영적수련



금식 기간의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주일에는 성 그레고리오스 팔라마스 데살로니카의 대주교(14세기)를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성 그레고리오스는 발람(Barlaam)의 이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한 정교회 교리를 옹호하였고, 정교회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세계공의회가 있는 지 수세기가 지난 후 성인은 하느님의 도움으로 정교회를 옹호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였고 정교회 신학을 온전히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성인은 이전의 모든 교부들의 가르침의 전승을 요약하고, 삶의 목적은 수련과 겸손과 회개의 눈물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신화(神化)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성 그레고리오스는 인간의 영혼을 깊이 연구하고 그의 가르침으로 길

을 비추었습니다. 그 길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창조되지 않은 빛을 보기 원한다면, 즉 신화가 되길 원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따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의 글에서 그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욕망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체의 욕망은 수련으로, 정신의 욕망은 기도로, 그리고 영혼의 욕망은 회개의 눈물로 치유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빛의 무기로 무장하여 욕망들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자신의 지체들을 회개, 순결, 기도의 수련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 더러운 생각과 악행을 금식하지 않으면 결코 창조되지 않은 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교회에서 가르치는 수련은, 우리 시대에,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소비주의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어둠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절제와 수련의 기간인 대사순절에 성 그레고리오스 성인의 축일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적 있나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정말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이상 무엇을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기뻐 뛰면서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고맙습니다!’

꽃을 보아도, ‘고맙습니다!’

우유 한 잔을 마실 때도, ‘고맙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를 보고도,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 까닭에 바울로 사도는 “나 날이 새로워지라”(고린토2서 4:16)고 말합니다. 이것은 집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집이 낡아짐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집을 수리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낡고 누추하게 되도록 하였습니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회개와 눈물과 고백성사와 자선으로써 영혼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들을 결코 중단하지 마십시오. (대사순절은 바로 이를 위한 기간입니다!)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407년 안식)

대화를 할 때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대화가 영적인 담화로 시작되었다가 남에 대한 비난과 헐담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단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헛된 일에 쓰는 것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을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 성 파이시오스 아토스산 수도자(† 1994년 안식)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일정

4월 4일 - 인천 성 바울로 성당
4월 11일 -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
4월 18일 - 전주 성모안식 성당
4월 25일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대사순절 기간 예배 유튜브 생중계

코로나19로 인해 대사순절 주중 예배에서 화, 목요일 오후 5시 석후대과, 수요일 오후 5시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금요일 오후 6시 성모기립찬양을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시간 안내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는 대사순절 기간 주중에 수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두 번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가 거행됩니다. 신자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주 성모안식 성당

■ 성당 재건축

하느님의 도움으로 성당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20

일(토)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성당 내부 지성소와 세례조를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예배에 적합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시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정교주일 예배

지난 3월21일 정교주일을 맞이하여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일라리온 신부와 요한 보제와 함께 성찬예배를 집전하고 정교주일 행렬을 하였습니다. 대주교는 정교주일을 맞이하여 설교에서 성화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주간예식



- 화, 수, 목요일 오후 5시 - 석후대과
 - 3월 31일(수) 오전 9시 - 미리 축성된 성찬예배
 - 4월 2일(금) 오후 6시 - 성모기립찬양(제3스타시스)
- (자세한 예배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